

 행정자치부	<h2>보 도 자 료</h2>	작성과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2017년 4월 25일(화) 조간 (4.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강성천 주무관 김희근
		연락처	042-481-1782 042-481-1778

1950 ~ 60년대 외지인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사

- 국가기록원, 前(전) 주한미군 닐 미샬로프·폴 블랙 희귀사진 1,300여점 기증 받아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1950~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와 폴 블랙(Paul E. Black)**으로부터 희귀사진 1,300여 점을 기증 받았다.

*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 : 1943년생.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 복무(1968.3.~1969.4월)

** 폴 블랙(Paul E. Black) : 1935년생. 용산 미8군 사령부 복무(1958.5.~1959.6월)

- 1968년 안양 석수동에 위치한 제83병기대대 '우편병'으로 복무한 닐 미샬로프는 안양과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를 오가며 1960년대 주한미군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그가 찍은 사진은 약 1,200여 점이다.
- 그의 사진은 주한미군 부대 내 모습과 미군의 방직공장 시찰 및 노동자들의 모습, 한국노무단(KSC) 등 1960년대 말 한국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

※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요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으로 만들어진 미8군 산하 노무사단(지계부대). 종전 후 주한미군 업무지원 별도 조직으로 잔존

- 또한 오산, 안양 등지의 항공사진은 당시 해당 지역의 지형을 살필 수 있는 중요 기록으로 평가된다.

○ 그 외에도 닐 미샬로프 사진은 1960년대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지의 시가지 및 당대 한국인들의 일상 모습을 폭넓게 담고 있다.

- 서울시 구(舊) 청사와 보수 중인 서울역 및 영등포역, 장충체육관, 한강 나루터, 기계·부품 가게들이 늘어선 청계천의 모습 등 1960년대 서울의 주요 건물과 다채로운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다.

-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반도호텔의 모습도 눈여겨볼만 하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인이 세운 반도호텔은 미군정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사무실, 미 대사관 등으로 사용됐다.

- 또한, 일제시기 건물들이 즐비한 인천 시가지와 개발되기 전 인천 항만의 모습에서 과거 인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안양 시내 극장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들, 수원 인근의 초가집 등에서도 50여 년 전 소소한 우리네 일상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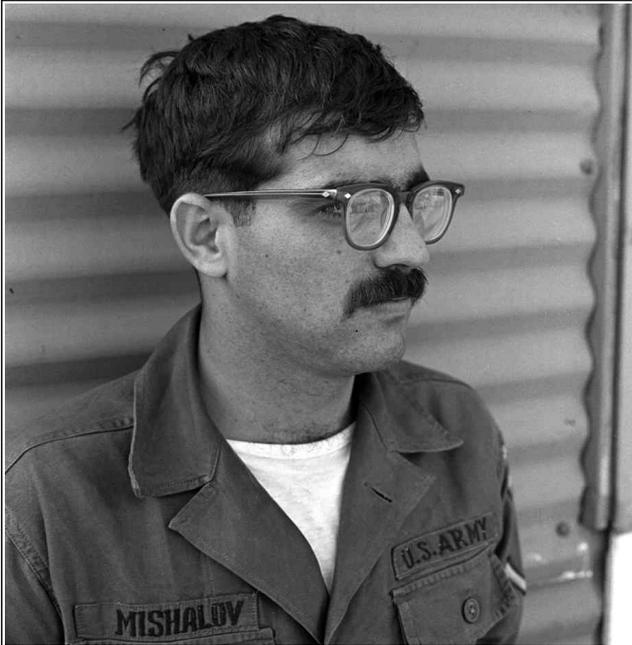
□ 한편, 폴 블랙은 1958년 한국으로 파병돼 미8군 사령부 인사과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용산 일대와 초창기 용산기지의 모습을 찍은 희귀사진 109점을 기증했다.

○ 폴 블랙이 기증한 사진은 1950년대 후반 점차 모습을 갖춰가는 용산기지의 모습과 당시 현존했던 일제 건축물의 변천사 등을 역사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 사료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주목되는 희귀사진이다.

- 미군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는 미군을 위한 복지·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폴 블랙이 기증한 건물 사진을 통해 1950년대 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
 - 또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용산기지 내 일제시대 극장 건물(SAC Theater*1)도 폴 블랙의 사진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6.25전쟁 당시 파괴된 김포공항 터미널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이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으며, 1958년 베트남 순방 후 이승만 대통령 귀국 환영 사진과 용산기지 인근 이태원·남영동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흥미롭다.
-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주한미군 개인기록 기증을 계기로 향후 한국과 인연이 있는 해외 인사들로부터 주요 기록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폴 블랙(Paul E. Black)은 주한미군 복무 시절 매주 부대에 놀러와 친하게 지냈던 **김정섭(당시 중학생)씨의 소식이 궁금하다고 전한다.** 사진 속의 주인공 이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은 국가기록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담당자 ☎ 042-481-1778



1. 기증자 닐 미살로프(Neil Mishalov)
1943년생.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 복무(1968.3.~69.4월)



2. 닐 미살로프(Neil Mishalov) 기증 기록물
1968~69년 촬영, 컬러 슬라이드·흑백 네가티브 필름 총 1,200여점



3. 파병 직후. 한국에 도착한 미군들(닐 미살로프)



4. 안양 소재 미8군 예하 제83병기대대(닐 미살로프)



5. 제83병기대대 내 줄지어진 막사(닐 미살로프)



6. 한국노무단(KSC)과 주한미군(닐 미살로프)



7. 미군의 방직공장 시찰(닐 미샬로프)



8. 1960년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모습(닐 미샬로프)



9. 업무수행을 위한 미군 헬리콥터 탑승(닐 미샬로프)



10. 항공사진 - 오산 인근 초가집(닐 미샬로프)



11. 서울시청 앞. 현 서울광장(닐 미샬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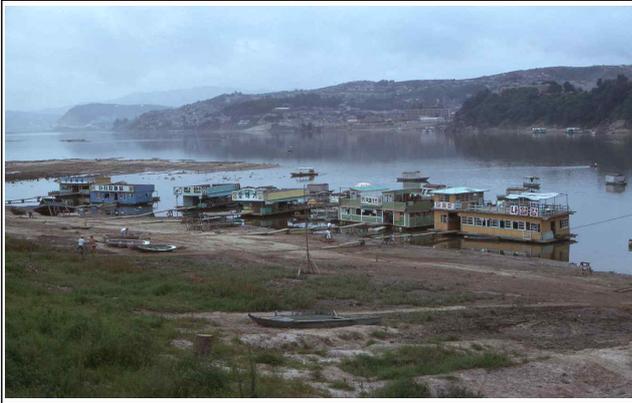
12. 공사 중인 서울역(닐 미샬로프)



13. 서울 영등포역(닐 미샬로프)



14. 서울 장충체육관(닐 미샬로프)



15. 서울 한강(닐 미샬로프)



16. 서울 반도호텔(닐 미샬로프)



17. 서울 청계천 기계 부품 상가(닐 미샬로프)



18. 서울 종로 아카데미 극장(닐 미샬로프)



19 용산. 한강을 향하는 길목(닐 미샬로프)



20. 개발되기 전 인천항(닐 미샬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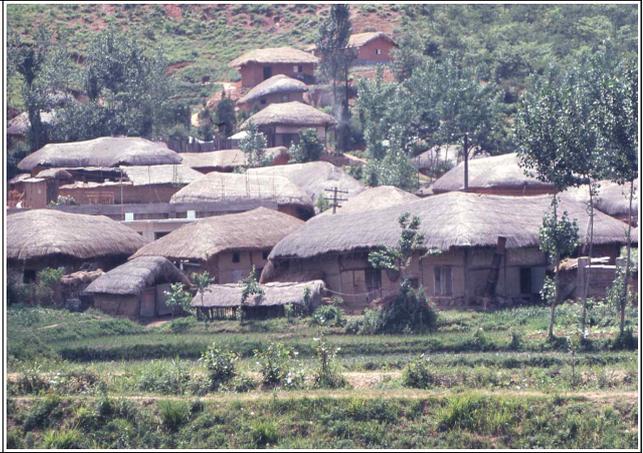
21. 인천 시가지 모습(닐 미샬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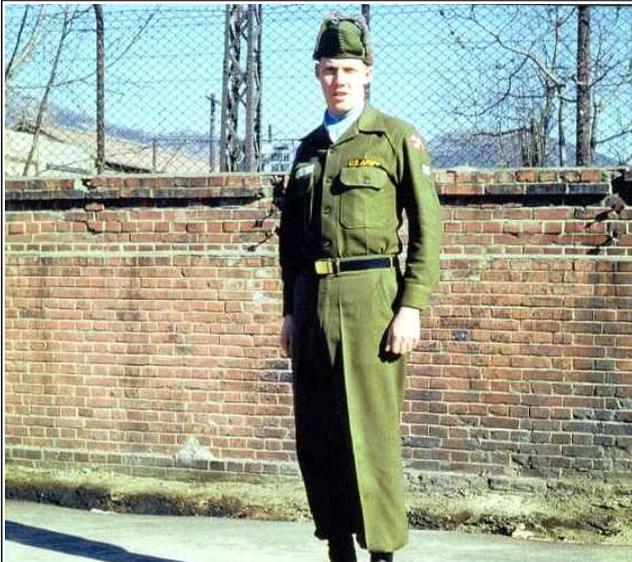
22. 안양. 비온 뒤 버스정류장(닐 미샬로프)



23.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닐 미샬로프)



24. 수원 인근 초가집(닐 미샬로프)



25. 기증자 폴 블랙(Paul E. Black)
1935년생.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복무(1958.5.~59.6월)



26. 폴 블랙(Paul E. Black) 기증 기록물
1958~59년 촬영, 흑백 네가티브 필름·인화사진 등 총 10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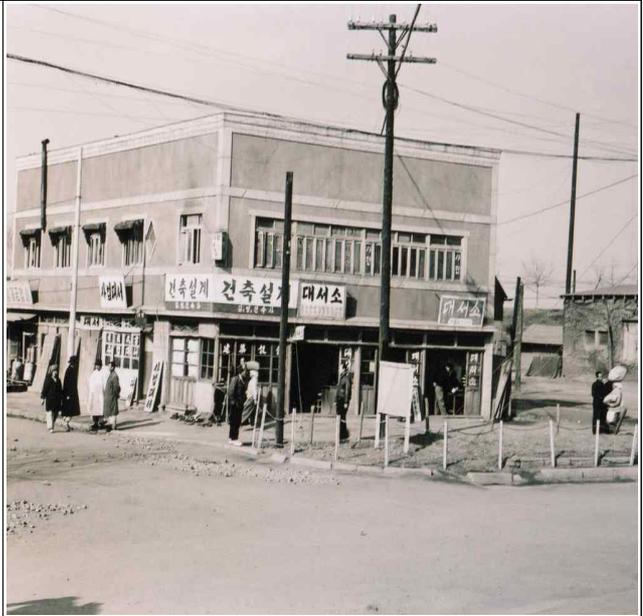
27. 용산기지 미군위문협회(USO)(폴 블랙)



28. 미군위문협회(USO) 보수공사(폴 블랙)



29. 용산기지 일제 극장 건물(폴 블랙)



30. 용산기지 인근 거리 모습(폴 블랙)



31. 용산기지에서 바라본 한강 남쪽 모습(폴 블랙)



32. 6.25전쟁 당시 파괴된 김포공항 터미널(폴 블랙)



33. 베트남 순방 후 이승만 대통령 귀국 환영(폴 블랙)



34. 고아원 아이들(폴 블랙)



35. 용산기지 인근 노점상 모습(폴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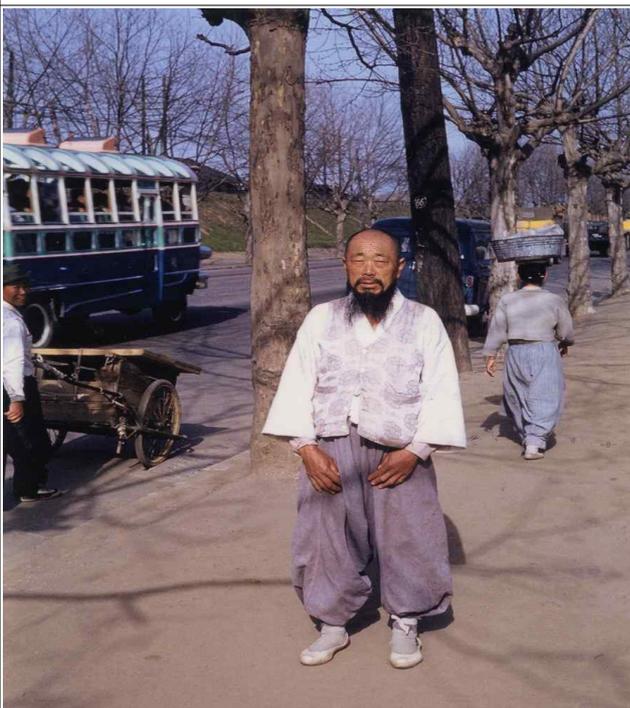
36. 서울 남영동 해태제과 공장(폴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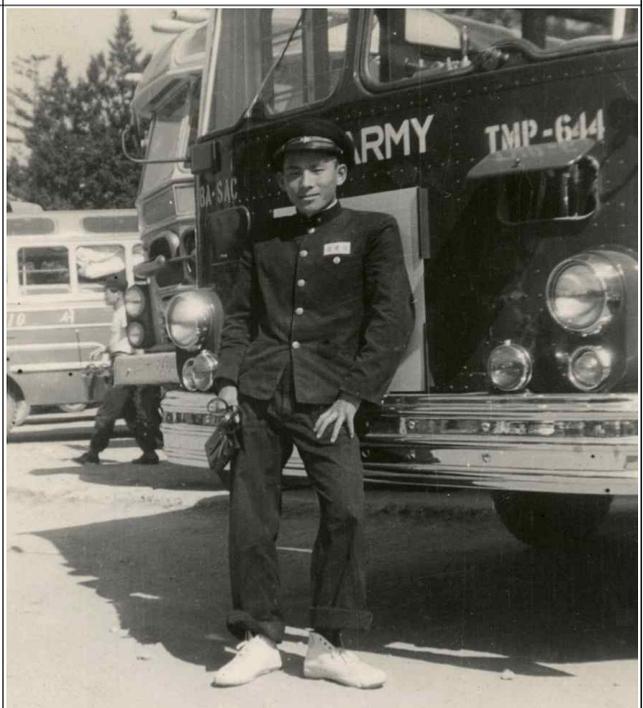
37. 서울 용산 인근 상점가 모습(폴 블랙)



38. 서울 이태원우체국(폴 블랙)



39. 서울 용산 한강로 노인(폴 블랙)



40. 소식이 궁금한 김정섭 학생(폴 블랙)